

의치파절의 원인과 파절양상에 관한 문헌고찰

정수양*, 송광엽, 박주미, 안승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의치의 사용은 무치악 환자들에게 심미적, 기능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의치는 기존의 치아구조물들의 기능적인 면을 대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에 있다. 의치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반응으로는 치태축적과 알레르기반응 기계적자극이나 구강미생물 변화외에 현저하게 저하되는 저작력, 저작효율을 들 수 있다. 현재 임플란트 지지 보철등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치료기간이나 비용등의 문제로 의치사용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치사용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서도 의치파절은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두배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된다. 이런 의치파절의 정확한 원인은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며 의치가 파절되는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의치제작과정과 의치사용에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많은 변수들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조사되어진 의치파절 원인과 파절양상에 관한 여러 문헌들의 고찰과 증례를 들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치파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조사된 의치파절의 원인으로서는 기능시의 변형과 움직임, 의치내부의 응력분포, occlusal design, 구강내 water absorption에 따른 변형, 적합이 나쁜 의치, 기공작업상의 오차등과 잔존치조제에 대한 의치의 배열양상, 너무 깊은 incisal notch 형성등을 들 수 있다. 파절양상도 상악에서 하악보다 두 배가량의 많은 파절빈도를 보였으며 대부분 파절양상은 인공치의 탈락과 파절, 정중선 파절이 주로 보여졌고 resin과 금속연결부위의 분리등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